

민주주의 전당 광주·창원·서울 삼각축 건립 파기 반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협약 무효화 결정 공문

광주시 비대위 구성 ... 창원시와 공동 대응키로

광주시와 경남 창원시가 한국 민주주의 전당의 광주·창원·서울 삼각축 건립 협약 무효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이사회에서 2013년 11월 삼각축 건립 협약을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광주시에 보냈다. 시는 다음달 3일 '민주주의 전당 광주유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념사업회의 입장이 공식 확인된 만큼 지난 회의 등에서 결정한 대로 비대위를 꾸릴 예정이다. 비대위에는 국회의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등 3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최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남 창원시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22일 창원, 광주, 서울 3곳에 전당을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냈다. 정광식 경남도의회 의원도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부는 최근 민주주의전당을 경기도 의왕시에 짓기로 하고 건립 예산 483억원 중 4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결위에서 삭감돼 무산됐다”며 단독 건립 계획을 비판했다. 광주시는 애초 부지 4만㎡에 건축 면적

9900㎡ 규모로 전시관, 교육센터, 연구소 등을 갖춘 전당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창원시도 3·15 민주묘지 안과 마산 서항지구 천수공간 조성 예정지에 부지를 확보해 전당 건립을 추진해왔다. 한국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013년 광주유치추진위원회, 마산유치추진위원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광주·서울·마산에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분산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민주주의 전당 광주유치를 위해 시민단체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 청와대, 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왔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서울 유치를 희망한데다 마산시가 3·15의 거 관련 단체와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

등을 중심으로 전당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온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007년 서울 덕수교교와 경찰청 인권센터를 전당 건립 후보지로 압축했다가 학부모와 경찰단체의 반발로 부지선정을 철회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옛 남산 중앙정보부 터를 후보지로 정하고 3000만원을 들여 용역까지 발주하기도 했다. 당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비도 1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대폭 축소했다. 광주시는 당시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광주교도소 부지(10만8423㎡)에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광주교도소는 5·18을 비롯한 여러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투옥됐던 상징적인 장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전기자동차 육성 쟁걸음

(주)LG·한전 전문가 초청 EV산업 미래·투자유치 논의

전남도가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가 에너지산업 육성 위해 수립한 10개년(2016~2025) 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터 등 핵심부품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충전과 배터리 대여 등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부터 받은 것이다. 전남도는 2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주)LG와 한국전력의 전기자동차(EV)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전남 에너지산업 10개년 계획, EV산업의 현재와 미래, 국내외 전기차 동향 및 사업화 방안, 관련 산업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가중 정부부지사 주재로 일자리정책실과 경제과학국 직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지난 4일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기 기적(2020년)으로는 전기자동차 관련 부

품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2030년)으로는 완성차 제조업을 유치해 전기자동차 중심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정보 입수와 미래 투자 전망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LG그룹은 세계 자동차 판매 3위 업체인 GM에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인 모터, 인버터, 전동컴프레서 등 11종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전은 올해 에너지 신사업단을 신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EVC),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LG측은 지난해 11월 한전,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장

윤장현시장·최외근사장 선임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는 26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제2대 공동협의회장에 윤장현 광주시장과 최외근 한전KPS㈜ 사장을 선임했다. 회의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외근 한전KPS㈜ 사장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16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혁신도시 조성 상황 ▲ 2016년 실무위원회 공동추진계획 ▲ 2016년 지역발전분과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에너지·문화예술·정보통신·농생명 등 4개 분과 91명으로 출범한 지역발전분과위원회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공동전략산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공공기관과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광주·전남 교육청 등 21개 기관이 혁신도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2014년 12월 출범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26일 나주시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비전홀에서 열린 '제2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이 협의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방병원·관광호텔 들어선다

전남도-나주시·동신대 등

1195억원 투자 협약 체결

전남도가 26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한방병원과 관광호텔을 건립하고, 담양에 새꿈도시를 조성하는 업무협약 및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올해 유치 목표는 275개 기업이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김필식 동신대학교 총장, 2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19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른 고용 창출 규모는 261명이다. 협약 내용은 동신대학교의 한방병원 건립 등 빛가람 캠퍼스 조성, 유한회사 예가람의 나주 혁신도시 내 관광호텔 건립, (주)태호건설의 담양 새꿈도시 조성 등이 다. 협약에 따라 동신대는 2022년까지 빛가

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1만4538㎡ 부지에 450억원을 들여 한방병원 중심의 의료 및 교육시설을 갖춘 빛가람 캠퍼스를 조성한다. 빛가람 캠퍼스가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의 중요한 의료 기반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유)예가람은 혁신도시 부지 6312㎡에 400억원을 투자해 3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방정가

조오섭 “옛 교도소 부지 ‘솔로몬 로파크’ 재검토를”

광주시의회 조오섭(북구 2) 의원은 26일 “법무부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조건으로 제시한 ‘솔로몬 로파크’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도소 부지에 솔로몬 로파크 유치가 과연 민주인권평화컴플렉스라는 공간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옛 교도소 부지는 법무부 땅이 아닌 국민, 시민의 땅임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무상양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옛 교도소에는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청년의 조국 사랑, 사형수의 마지막 회한 등 통탄의 세월이 남아있다”며 “흔적이 없어지기 전에 옛 교도소를 스토리텔링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은 지역주민과의 소통, 5·18 시설과의 전체적 조화 고려 등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 구성도 제안했다.

전진숙, 광주트라우마센터 상설화 대책 촉구

전진숙(북구 4) 광주시의회 의원은 26일 광주 트라우마센터 상설화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센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올해부터는 예산을 더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시가 단일한 대처로 일관한 탓에 센터 독립, 상설기구화 논의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예산지원 불가 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는 ‘대책 마련 중’이라



는 말보다 시급성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센터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처음으로 설립된 치유기관”이라며 “30여만 명에 이르는 고문·국가폭력 생존자들의 치유가 절실한 상황에서 센터 설립은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미소

맛있는 해남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농수특산물 선물특선

이번 설 선물은 대한민국 최남단 청정 해남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1호

맛있는해남 명품 1호
다시밀 500g, 파래김 100장, 단감 1줄, 팔 1kg, 무화과즙 1box 5팩, 고구마 2kg, 한눈에 반한 쌀1kg

2호

맛있는해남 명품 2호
고구마 2kg, 무화과즙 550g, 수수 1kg, 다시밀 500g, 건표고 100g, 감말랭이 1box, 한눈에반한 쌀 1kg, 고춧가루 500g

3호

맛있는해남 명품 3호
재래돌김 100장, 참기름 300ml, 단감말랭이 1팩, 고구마 2kg, 수수 1kg, 세말 500g, 뜯섬 쌀 5kg, 표고버섯 150g, 무화과즙 550g, 콜라비 500g

스페셜 1호

맛있는해남 스페셜 1호
인삼(6년근) 750g, 덕덕(4년근) 1kg, 참기름 300ml

NAVER **해남미소** 검색하세요!

www.hnmiso.com / www.해남미소.한국

061-537-1472 (일사천리)
080-859-1100 (무료전화)

해남미소-온라인 특별 할인판매 (1104주중)
실구매 금액이벤트
2016.1.4~2.3 (17개월)